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414

2019.9.29

청소년순 특집호

2019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 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_ 고전 12:23-25

오늘의 주요기사

- 2~3면 순식탁 이야기
- 4~5면 청소년 사역의 현실
- 6~7면 비전트립 간증
- 8면 자유의 난민 이야기
- 9면 회장단 꼬마 인터뷰
- 10~14면 청소년 생활 탐구
- 15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 16면 동영상 소개, 편집후기

교회일정

- 9/29(주일) 향존직 투표권자 명단 확인
- 10/2(수) 교구연합 수요기도회
- 10/6(주일) 향존직 1차 선거
- 10/13(주일) 향존직 2차 선거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우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좁다!

좁다! 교회는 거대하지만 청소년들이 모여 함께 웃고 떠들며,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소통할 교회안 공간은 터무니없게 좁다.

좁다! 자기자신을 찾아 방랑할 기회도 모험도 주어지지 않는 입시 위주 생활, 학교와 학원을 벗어날 수 없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화를 체험하기에는 매일 반복해야 하는 수레마퀴의 굴레가 너무 좁다.

좁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지만,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하나님 주신 자신의 길을 찾아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며 다양한 꿈을 꾸기에는 물질만능과 무한 경쟁 시대가 허용하는 자유의 공간이 정말 좁다!

청소년숲 특집 | 순식탁

청소년 가족들의 ‘순식탁’ 이야기

평범한 하루, ‘순식탁’ 풍경

평범한 주일 아침, 온수통에 물을 채우고 후원받은 먹거리를 진열합니다. 오늘은 누가 이 식탁에 찾아올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중고등부 예배와 일정이 끝날 무렵, 4층 청소년교육목회원 사무실 문은 활짝 열립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아이들의 경쾌한 발소리와 웃음 가득한 말소리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금방 사무실은 ‘순식탁’을 찾아온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데도 친밀함의 간격 속에,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한 식구가 되어 웅기종기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식탁이 좁으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고 곁을 내어줍니다. 이 작은 식탁에 드넓은 예수님의 마음이 퍼집니다. (주중에는 정신여중고 학생들과 함께)

후루룩후루룩, 찹찹, 소곤소곤, 하하 호호. 먹고 떠드는 사이 속 깊은 고민과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이들 사이의 문제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참 몰랐구나 싶어 한편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아이들의 삶 깊이가 들어갈 문이 열리는구나 싶어 마음 깊이가 기쁨을 느낍니다.

“집에서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해요.”라고 너스레 떨며 소박한 식탁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아이, “OO 메뉴도 추가하면 딱인데!”라며 ‘순식탁’ 운영에 신의 한 수를 두는 아이, 교역자 손이 부족해 바쁠 때 함께 일을 거드는 아이. 어느새 ‘순식탁’은 아이들이 채워가고, 그러가고,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먹거리, 비싼 먹거리를 마음껏 누리는 식탁은 아니지만, 낯선 친구에게 내 곁을 내어주고 함께 생명의 축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잔치의 자리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행위에 담긴 의미

동물의 삶을 다룬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노라면, 생명 현상이란, 곧 먹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온종일 먹는 일에만 열중하는 동물들의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먹는다는 건 단순히 한 몸의 허기를 채우는 것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에게 먹는 일은 그들 나름의 사회생활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활을 하는 사자들은 사냥 후 항상 수사자가 먼저 사냥감의 가장 맛있고 좋은 부위를 먹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서열에 따라 남은 것을 나눠 먹죠. 때론 그 후에 남은 찌꺼기를 또 다른 동물들이 차례로 와서 먹기도 합니다. 먹는 장면에는 동물 무리의 사회 질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동물의 식탁을 측은하게 바라보다가, 문득 우리네 삶을 돌아보니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와 현실을 돌이켜보면, 우리 사람의 식탁이야말로 항상 계급과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펼쳐지는 상징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대립했던 성전과 회당의 권력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거룩하다고 자칭하며, 자신들을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과 구별했습니다. 그 차별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낸 공간이 바로 이들의 식사 자리, 그 식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혹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과만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힘없고 약한 이들을 부정하다고 낙인찍어 배제하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꿈꿨습니다.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 가난한 자들의 살아갈 권리를 빼앗았고, 동물 무리처럼 강한 이들이 대접받는 경쟁과 차별의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식탁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눅 7:34)’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새로운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모두 함께 먹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나누셨습니다. 식탁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그 식탁에 자기 자신을 영원한 생명의 음식으로 내어주시고 모든 아프고 소외된 이들의 주님이시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로버트 뱅크스, 신현기 옮김, IVP)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찬에 한 사람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만찬 자리에서 그들이 나누는, 서로를 향한 환영과 환대, 평화의 인사를 보며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식탁에 앉을 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종과 노예들과 함께 앉아 있고, 오히려 종을 상석에 앉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분노를 표출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는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차별이 없었고 흔히 보이는 무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실제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서로 빵을 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살려면 빵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더욱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를 행합니다. 이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계속 함께 먹기를 바라시기 때문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입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먹으면서 그분을 우리 안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고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만찬과 세례와 예배와 교제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쓰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청소년 사역 = 함께 먹는 사역 = 예수님의 식탁

‘순식탁’은 예수님의 식탁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식탁 공동체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함께 먹는다는 건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먹는 행위는 공동체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존을 위한 수단을 넘어, 함께 먹는 이들이 하나 되는 일체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환대의 식탁을 통해, 경쟁과 차별로 얼룩진 우리네 삶과 마음에 평등과 평화와 사랑의 기운이 차오릅니다. 함께 먹으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 사역은 곧 ‘먹는 사역’입니다. 저는 이것이 전부라 단언합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식탁에 둘러앉는다는 것은, 소외와 분리와 차별의 자리에서 친절과 사랑과 평화의 자리로 우리 삶을 옮겨오는 일입니다. 한 식탁 둘러앉아 타인에게 기꺼이 내 곁을 내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의 깊이와 넓이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함께하는 식탁 자리에서,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며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잘 먹는 환경에 있으므로 잘 먹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단지 영양에 관한 말이라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상황에 국한한 말이라면,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2~3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에게 훨씬 더 풍성한 먹거리와 먹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수 속에 목이 매듯, 오늘 우리는 우리 청소년의 먹는 문제에 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더 잘, 제대로 먹여야 합니다. 무한 경쟁과 물질주의 시대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곁에 있는 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헤매

는 청소년들을 ‘조건 없는 용납과 사랑으로 준비된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교회의 ‘청소년 사역’입니다.

먹는 공간, 함께하는 공간으로서의 교회

저는 어릴 때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울고 있던 나를, 언제나 반겨주고 맞아주었던 곳, 그곳이 교회였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두근거리며 기다렸고, 토요일 성가대 연습 시간이 일주일 삶 중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집에 갈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정 안에 가난과 고통이 가득했지만, 교회만 오면 참 즐거웠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떠올리면, 선생님과 친구들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먹고 이야기 나누던 식탁의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을 풍성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그 기억이, 그 식탁에서 경험한 따뜻함과 친절, 환대와 사랑의 느낌이 제가 제 인생을 축제로 받아들이게 하고, 끝없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견인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부디 교회가 참 좋은 곳으로 기억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평화를 경험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처럼, 여전히 소외와 분리와 차별을 위한 세상 식탁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친절과 사랑과 평화가 지배하는 은총의 식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먹기를 탐하며’ 청소년들과 함께 ‘순식탁’을 펼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임경순 목사



‘순식당’이 아니라 ‘순식탁’입니다!

1. 순식탁은 4층 청소년교육목회원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매점입니다.
2. 순식탁은 (지금까지) 100% 후원금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3. 순식탁의 메뉴는 그때, 그때 다릅니다.
4. 순식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5. 순식탁에 오면 ‘인싸’와 ‘아싸’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6. 주중에는 정신여중고 가족들이, 주일에는 중고등부 가족들이 바글바글 함께 합니다.
7. 순식탁에는 청소년 말고도, 청소년의 가족들, 동생들, 지인들, 교사들도 찾아옵니다.
8. 순식탁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웃과 형제자매로부터 흘러온 것을 그대로 흘러보냅니다.



청소년숲 특집 | 주님의교회와 청소년 사역

청소년 사역, 하나님 주신 주님의교회 비전

돌이켜 본 주님의교회 30년과 청소년 사역의 현실

정신학원으로 인도하신 뜻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의 만남에는 분명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을 것이다. 정신학원의 강당 건축 사업은 예 배당 무소유 정신과 재정의 5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한다는 주님의교회 창립 정신이 결합하여 구체화 된 것이었다. 큰 자금을 들여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평일에는 빈 공간으로 남겨두기보다는 학교와 교회가 조화롭게 함께 쓰는 것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었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추진하시는 일로 여겼다. 이러한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의 만남이, 학교와 교회가 강당을 매개로 공존함으로써 청소년 교육에 좋은 동반자 관계를 맺고 청소년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갖게 하였다.

학원선교의 시작, 기도어머니와 사랑어머니

1998년 정신학원의 대강당을 매개로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지만, 정신여중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게 시작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01년에 정신여고의 성경공부 시간 중 매월 1시간을 교회 어머니들의 시간으로 할애받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예민한 여고생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른, 무조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어른, 신뢰할 수 있는 어른, 기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 이 사역은 현재까지 이어져, 80여 명의 기도어머니

들이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정신여중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인성훈련 프로그램과 복음제시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오며, 정신학원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4년, 주님의교회 비전으로 청소년 사역 구제화

2004년 정책당회에서 논의되었던 주님의교회 비전은 네 가지였다. 그중 세 번째 비전이,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청소년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비전팀’, ‘비전위원회’를 전문위원들로 구성하여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는 비전을 구체화하며, 예산의 25%를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고, 기독교 중고등학교에 ‘강당’을 건축 기부하여 제2, 제3의 주님의 교회를 번식해 나가는 일”이었다. 이러한 비전의 제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2004년 1월, ‘청소년 사역 비전팀’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구체화해나갔고, 2004년 6월 27일 교회 주보 1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록하여 모든 교인이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도록 했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교회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교회 예산의 50%를 세상을 위해서 쓰면서

1.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2. 주님의 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비전팀은 먼저 청소년 문제가 심각 한데도 비전을 가진 청소년 지도자가 부족한 시대적 상황과 학교 강당 건축으로 자연스럽게 정신학원과 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청소년을 섬기는 교회로 주님의교회를 부르셨다고 인식했고 교회가 직접 추진할 3대 중점 사역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교회 학교의 모델 구축, 청소년 리더십 스킴 운영을 내놓았다. 이러한 청소년 사역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되었다. 청소년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팀 운영, 전용 공간 마련, 교회 예산의 25%까지 확대, 총괄 전문 사역팀 구성과 전문 간사 채용 등이었다.

2008년, 청소년사역원 개원

청소년사역원은 교회 외부에 있는 청소년 사역자들을 위한 세미나와 미자립교회 청소년을 초청하는 신앙수련회를 개최했고, 학부모와 수험생을 위한 말씀묵상집을 집필하는 일들을 감당했다. 뿐만 아니라 학원선교부, 반가운학교, 뮤직아카데미, 커리큘럼연구소 등이 청소년사역원에 포함되어 운영되었는데, 이러한 조직의 개편으로 주님의교회의 중심 비전으로 공유되어 있던, 청소년집중사역과 학원선교사역이 교회 밖, 한 부분의 사역으로 인식되었다. 청사원의 개원을 통해 오히려 청소년 사역을 청소년과 관련된 사람들만의 사역으로 축소되어 자리하

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사역원 안에는 반가운학교, 뮤직아카데미, 학원선교부, 꿈나무(청소년복지), 청소년사역지원부(청사원지원부-정신포럼, 전국교회청소년수련회, 정신여중고찬양축제, 간식지원, 수능기도회, 세미나 개최)의 부서들이 소속되어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주님의교회 청소년부의 현주소

2004년 ‘청소년 사역 비전팀’이 제시했던 구체적인 안들(청소년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팀 운영, 전용 공간 마련, 교회 예산의 25%까지 확대, 총괄 전문 사역팀 구성과 전문 간사 채용)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했다.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주님의교회의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으며, 전문 사역팀의 구성과 채용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고, 교회학교에 대한 예산마저 삭감되어 가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교회가 정신학원과 함께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학원선교의 사명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중고등부에는 정신여중고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다. 부모님이 믿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많지 않다. 정신여중고 학생들이 이중고등부에 많이 속해 있었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던 10여년 전과 비교해 보면, 지금

청소년숲 특집 | 중등부 소식

팝콘트리 중등부 QT 학교

팝콘트리 중등부는 9월 한 달간 중예배실에서 예배 후 반별 모임 시간을 대신해 QT 학교를 진행하였다. QT 학교는 QT라는 것을 낯설어하는 중학생 아이들에게 QT를 소개하고 친숙하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준비되었다. 처음 2주간은 QT에 대한 이해와 동기부여하는 시간을 가졌고, 나머지 2주간은 실제로 학

생들이 모여 QT를 하는 법을 훈련하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던 학생들도 친구들과 함께하며 재미있게 QT를 익혔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각자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졌다.

왕상현 목사

청소년숲 특집 | 고등부 소식

조영찬 전도사 유튜버 되다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조영찬 전도사는 5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여 현재 구독자 5천명을 가진 유튜버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아이템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조전도사는 현재 많은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어려운 때를 보내는 청소년들과 함께하고 있다. 유튜브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정보의 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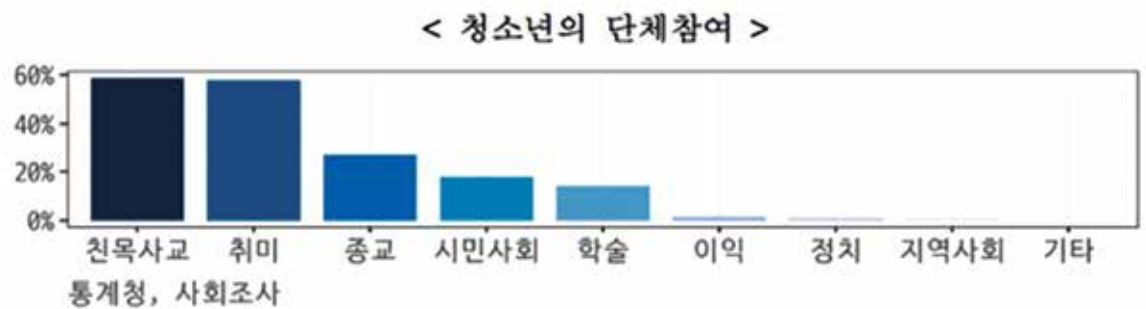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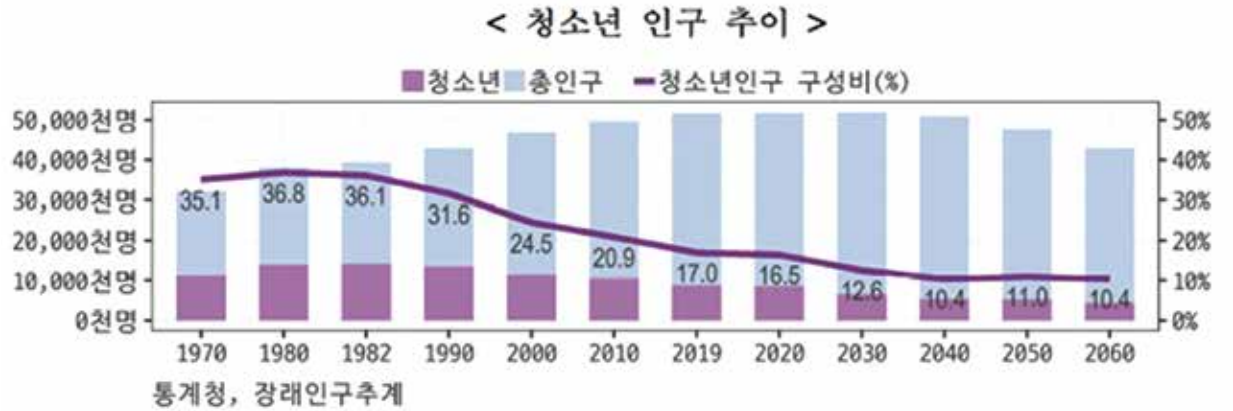
그곳에서 그들은 많은 정보들을 얻고,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이해하고, 가치관을 배워 나간다. 방송을 시작한 초기에는 조영찬 전도사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한 중학생이 교회로 찾아오기도 했다. 이는 새 세대를 위한 새로운 전도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임경순 목사

주님의교회의 중고등부는 정신여중고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여러 다양한 아이들도 마음껏 품지 못하고 있다.

다음 자료는 2019 청소년(9~24세) 통계 보도자료 내용의 일부이다. 청소년 인구는 1982년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9년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0년에는 10.4%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회단체는 친목 및 사교(58.7%), 취미, 스포츠, 여가활동(57.8%), 종교(26.8%) 순서이다. 이 두 가지 자료를 통해 볼 때, 교회 안 청소년 수는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찾아오는 청소년 또한 감소할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의교회는 정신학원 2,000여명의 청소년들과 한 공간에서, 한 가족이 되어 살고 있다. 추수할 밭 한 가운데 주님의교회가 존재한다. 정신여고의 경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학생이 40%, 실제 교회 다니는 학생은 20% 정도이다. 주님의교회 청소년사역은 교회 학교, 중고등부의 울타리를 넘어 정신학원의 청소년들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청소년 사역의 중요성을 생각한다
주님의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다양한 사역들이 중요하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임을 기억할 때, 각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과 서야 할 자리는 분명히 다르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여기시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라' (고전12:12-27)하나님의 뜻을 좇아

청소년과 다음 세대, 교회학교 사역에 대한 사명과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주님의교회가 청소년(다음세대, 교회학교) 뿐만 아니라, 작은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아주 짧은 생을 사셨고, 아주 제한적인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

수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나의 길을 가야 한다' 말씀하시며 좁은 길, 순종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실행하는 주님의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함글함글

청소년순 특집 | 고등부 소식

비전트리 고등부 '쇼미더 암송'

지난 9월 8일(주일) 고등부에서 '쇼미더 암송'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말씀을 담고 있는 가사로 랩을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이 대회의 심사위원으로는 래퍼 비프리가 방문해 주었고, 참석한 3팀(

솔로, 듀엣, 트리오)은 놀라운 랩 실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모든 고등부 가족들이 하나

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문화와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마음 속 진실된 이야기들이 듣는 모든 이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고, 아이들의 마음과 속 사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

조영찬 전도사



청소년숲 특집 | 일본 나가사키 비전트립 간증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한 하나님을 찬양

일본에서의 5박 6일 비전트립. 힘들기도 하고 재미있는 일도 많았다. 일단 처음에 왔을 때 일본에 왔다는 그 느낌이 잘 들지 않았다. 그런데 사가성을 둘러보고 일본의 역사 속에 직위체계와 군주제도에 대한 것들을 배워보니 이제야 일본에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일정 다음에 나가사키로 이동해서 야경을 보았는데, 정말 아름다웠다. 말로는 표현하기 쉽지 않은데, 이제껏 봐온 야경이 전체가 빛나거나, 그 장소만 밝게 빛나 보이는 야경이었는데 이 나가사키 야경은 전체가 다 빛나진 않지만 조금 조금의 빛이 모여 이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조화로운 야경이었다.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야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둘째 날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느낌만으로 뜻깊은 시간이었다. 다음 날 본 군함도는 밖에서 보았을 땐 정말 아름다운 섬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폐허가 되어있었던 곳이었다.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한 일본에 대해 분노가 조금 올라왔고 또 일본 가이드는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화가 났다. 원폭기념관과 나가이 다카시 기념관에서는 군함도에서 느낀 것과는 달리 일본도 피해가 크구나, 그리고 그 와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일본 전체를 욕하고 혐오하면 안되고, 잘못된 사람과 잘못된 것이 없는 사람을 잘 구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가사키의 음식은 정말 맛있었다. 카스테라, 짬뽕과 돈카츠 등의 음식은 나와 잘 맞았다. 그 후에, 26인 순교기념관을 갔는데, 정말 이 척박한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전하려고 한 사람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250년 동안 GPS없는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을 믿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아쉽고,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 일정은 엔도 슈사쿠의 박물관을 가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정말 신부님들이나 일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온 사람들을 잘 표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는 침묵으로 침묵의 비까지 이동하는 일정이었는데, 나는 침묵으로 이동하면서 구름과 하늘, 그리고 그 밑에 바다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더위와 습함 속에서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주변의 힘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오바마로 이동하고, 그 성당에서 예배드릴 때에 정말 은혜로웠다. 형, 친구, 누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느껴져서 이 비전트립의 소망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느끼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일정들을 진행한 후에 후쿠오카로 가서 귀국하였다.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 느낀 점은 일단 많은 친구, 형, 누나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일본이라는 땅도 하나님을 믿기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며 안쓰럽다고도 생각하였다. 일정들이 무난하게 지나간 것과 다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힘든 일과 날씨, 고통 속에서의 하나님과 교제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잔잔함 속의 감동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함,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느끼게 되었다. 이 모든 일정과 계획에 힘써주신 선생님들과 집사님,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정 동안에 힘들어도 참고 버텨준 형들, 누나들과 내 친구가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장윤태 중등부

청소년숲 특집 | 일본 나가사키 비전트립 간증

모이면 아름다운 야경이 되는 가로등처럼

일단 이번 일본 비전트립을 전체적으로 떠올려 보았을 때 다 좋았다. 항상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이세영 목사님과 함께 웃고 여러 얘기도 나누고 시간을 보냈던 왕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정말 अच्छ고 배울 것이 많았던 일정과 좋은 친구들, 형, 누나들 덕분에 나에게 뜻깊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비전트립은 참석하는 것이 처음이라 기대감이 컸지만 이 시점에서 일본을 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또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도 한 여행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나가사키와 후쿠오카의 여러 곳을 가보고 일본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들과도 더욱 친해지면서 비전트립에 친구들과 함께 깊이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세영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가까이서 봤을 때는 이 가로등이 가로등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빛이 약한 일본의 가로등이지만 이 불빛을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나가사키의 야경이 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한없이 나약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감동을 주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모여 있음으로써 아름답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평화자료관에서 본 자료들 중에는 머리가 잘려나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머리를 들고 웃으면서 서있는 일본인 병사와 위안부 할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이 있었다. 원폭에 대한 피해를 감추려는 일본의 감시 속에서 당당하게 원폭의 실체를 밝히고 드러내려는 목사님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되었고 나라가 약하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엔도 슈사쿠 문학관에서 침묵의 비까지 걸어가서 다함께 찬양을 부르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기독교 신자가 많지 않은 타지 일본에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찬양들은 다함께 부르고 기도할 때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또한 잔인한 원자폭탄으로 인해 천주교의 독실한 신자였던 아내를 잃고 복수에 물이 차 자신의 두 아이들과도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가사키 시민들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고 평화와 사랑으로 상황을 받아들여야겠다고 전했던 나가이 다카시 박사에게도 정말 존경심을 느꼈다.

이번 비전트립 중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본 적이 있다. 막상 생각 해보니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특별히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 여행으로 인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김현서 중등부



청소년순 특집 | 일본 나가사키 비전트립 간증

아픈 역사의 길 따라, 은혜 가운데 추억과 우정을 쌓은 날들

첫 번째 날 (7/27)

공항에서 점심으로 국수를 먹고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사가현으로 이동하여 사가 성벽과 서양문물의 유입경로인 혼마루가 있는 사가성 혼마루 역사관에 가서 사가성의 영주인 나베시마 나오마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일본식 돗자리인 다다미를 깔은 방도 보았다. 그리고 나가사키로 넘어가서 저녁으로 뷔페를 먹고 나가사키의 야경을 본 후 나가사키 카톨릭센터 유스호스텔로 갔다. 나무로 지은 사가성에서의 나무 냄새가 편백나무와 같다고 생각을 하였고 나가사키의 야경은 작은 불빛들이 모여서 나가사키를 밝히는 장관이 '혼포니 스고이데스'였다.

두 번째 날 (7/28)

유스호스텔에서 조식을 먹고 주일이라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뱍티스트 교회에 가서 원자폭탄이 떨어진 시각인 11시 2분에 예배를 드리고 특별찬양으로 <꽃들>을 일본어와 한국어로 불렀다. 그 후 평화공원에 가서 평화공원에 있는 기념비와 일본인 희생자 추모비와 달리 너무나도 작아서 어이가 없었던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와 북한 희생자 추모비를 보았다. 그리고 가까운 공간에 위치한 나가사키의 아픈 역사인 원자폭탄에 가서 원자폭탄의 무시무시한 위력에 피폭당한 사람들의 피해와 건물들의 실체를 보았다. 그리고 역사박물관에 가서 일본이 재관하는 모습을 보여준 연극을 본 후 도루코 라이스와 카스테라를 먹은 후 유스호스텔에서 이세영 목사님의 자보아(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강의를 들었다. 뱍티스트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할 때 한국이랑 똑같아서 개인적으로 놀랍고 신기했으며 피폭당한 물건들과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면서 러시아가 너무나도 잔인했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 날 (7/29)

유스호스텔에서 조식을 먹고 나가사키 항구로 가서 조선인들이 강제징용을 당한 곳이며, 영화로도 나온 군함도에 배를 타고 가다가 뱍멀미에 시달렸다. 그 후 나가사키 짬뽕을 뱍멀미가 짝 사라질 정도로 맛있게 먹었다. 배고파서 뱍멀미가 났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우라천주당에 가서 이세영 목사님이 오우라천주당에 대한 자보아 강의를 해주셨다. 그리고 일본의 무책임한 현실을 고발하는데 일생을 바치신 오카 마사하루 씨의 뜻을 이어받아서 시민분들이 설립해주신 평화자료관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원폭 생존분들과 생존자분들이 당한 강제노동과 위안부에 대한 아픈 역사들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이후 자유시간에 신하림 선생님과 조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유스호스텔로 갔다. 군함도에서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자랑으로 생각하여 환호하고 박수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고, 오우라천주당은 입구쪽에 있었던 마리아 상이 매우 인상 깊었으며, 평화자료관에서 봤던 무참히 살해당한 사진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네 번째 날 (7/30)

유스호스텔에서 마지막 조식을 먹고 26성인 기념관에 가서 나카우라 줄리양 신부님의 초상화를 보았는데 목사님이랑 닮아서 매우 신기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순교한 아이들도 있었는데 아빠인 성미카엘 코자키와 함께 순교한 14세인 성토마스 코자키, 13세인 성안토니오, 그리고 제일 어린 12세인 성루도피코 이바라키이다. 그리고 소토메로 넘어가서 뷔페를 먹고 <침묵>이라는 책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엔도 슈사쿠의 기념관에서 이세영 목사님의 엔도 슈사쿠에 대한 자보아강의를 들은 후 '침묵의 비'까지 침묵으로 가는 중에 거의 다다랐을 때 급경사가 있어서 힘들고 직사광선 때문에 덥고 팔이랑 코가 빨갛게 화상을 입었지만 침묵의 비에서의 자연 선풍기인 바닷바람을 으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그 후에 오바마로 넘어가서 일본의 전통 집인 료칸에 가서 짐을 먼저 놓고 저녁을 먹은 후 이세영 목사님의 추억이 담긴 '산 마르자노'에서 찬양을 부르고 사장님의 감미로운 재즈 연주를 듣고 제일 기대했던 온천에서 동생들과 재밌는 추억을 쌓고 숙소에서 유카다를 입고 잤다.

다섯 번째 날 (7/31)

오바마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운젠으로 넘어가서 운젠 온천에서 고문을 당한 순교자들을 기리는 뜻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에다가 빵을 찍어서 먹었는데 포도주의 씹쓸한 맛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잘 안 보여서 지나칠 뻔한 십자가 순교비를 모르고 지나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일본 사람들이 순교비를 많이 찾아오고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했다. 그리고 운젠에서만 파는 운젠 소다도 마셨다. 그리고 시마바라로 넘어가서 시마바라 지역특식인 구조니를 먹고 시마바라 성을 갔다가 성당에서 기도제목을 나누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렸었다. 아무래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로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목상과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은혜를 느낀게 아닐까 싶다. 그리고 제일 그리웠던 후쿠오카에 가서 동생들과 라멘을 먹은 후 일본의 유명한 쇼팽몰인 돈키호테에 가서 제일 사고 싶었던 곤약젤리와 포도알 모양의 쿠키젤리와 인기있는 클렌징 폼을 샀다. 이후 숙소에서 박국이 목사님과 신하림 선생님 방에서 친구들과 동생들과 함께 간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여행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나랑 사라랑 시은이 방에서 새벽 2시 30분까지 채린이랑 길원이랑 민서랑 다섯명에서 게임을 하고 잤다.

여섯 번째 날 (8/1)

6시40분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유튜브를 보느라 조식을 포기한 채 짐을 챙기고(나중에 보니 충전기와 이루아스 복숭아 물을 안챙겼다는...ㅠㅠ) 다자이후로 이동해서 텐만구를 보고 전통 상점 거리에서 아이스크림과 전통식을 먹고 공항으로 가서 짐을 부치고 소지품 검사를 마친 후 기념품을 샀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서 기내식으로 칸풍 뽕밥을 먹고 비행기에서 내린 후 버스에서 숙면한 후 교회에 도착해서 임경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환영을 받고 임경순 목사님이 나랑 채린이랑 형근썸을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셔서 내가 제일 가까워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내린 후 집에 가서 짐 정리를 하고 뽕었다.

느낀 점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들을 기리고 역사들에 대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서 매우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우정

친구들과 동생들과 목사님들과 청년썸들과 집사님과 가이드님과 행복하고 은혜롭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서 더욱 친해지고 좋은 인연을 만나서 행복했으며 중등부 때부터 친했던 채린이랑 민서랑 시은이랑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서 친해진 사라와 우정이 돈독해져서 매우 행복했다. 하지만 경서랑 수랑 시은이랑 시현이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한 편으론 아쉽기도 했다.

정예은 고등부



청소년숲 특집 | 자유의 난민 이야기

내 친구는 이란인입니다

외모는 누가 봐도 외국인이지만 얼굴을 가리고 대화하면 누가 한국인인지 모를, 어느 한국인 친구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민혁이. 민혁이와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은 작년, 흔치 않은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민혁이의 상황... 민혁이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본국인 이란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언제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란은 이슬람 국가이고 개종을 할 경우 배교로 많은 박해와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7살 때 한국에 온 민혁이는 초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기독교로 개종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민혁이의 난민 불인정 소식을 접했을 때까지만 해도 부끄럽지만 난민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주도에서 부쩍 늘어난 예멘 난민에 대해 걱정하는 뉴스만 어렵듯이 머릿속에 남아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민혁이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친구를 살리기 위해 소송 관련 자료부터 난민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모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민혁이의 상황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6월 말. 저희는 유명인도 아니고 평범한 학생들이었기에 어떻게 친구의 소식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아이디어가 청와대 청원이었습니다. 청원글이 올라가자 감사하게도 저희 이야기를 기사화해주셨고,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기대와 달리 기사에는 악플들만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분노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댓글로 저희의 상황을 설명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 많이 알려질수록, 더 많은 악플들이 달릴수록 아이들은 성숙해져 갔습니다. 서로를 위로해주었고 "우리의 속사정도 모른 채 난민이라는 단어만 보고 무조건 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도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출입국청 앞에서의 시위, 청와대 앞 1인 시위, 염수정 추기경님 방문, 조희연 교육감님의 대화 등을 통해 민혁이의 사연과 민혁이가 난민으로 인정돼야 하는 이유, 그리고 공정하게 심사를 받을 권리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고, 10월 19일, 난민심사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과 민혁이는 통지서를 받으러 출입국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방에 올라온 '여

러분'이라는 한 단어만을 보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민혁이가 난민으로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생각났던지 친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모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서로 웃음만 지어보였습니다.

이렇게 민혁이가 난민으로 인정되어 앞으로의 모든 일이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저희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민혁이의 유일한 가족, 아버지가 동일한 사유로 난민재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미성년자 아들이 있으니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민혁이가 성인이 되는 3년 뒤, 민혁이의 아버지는 인도적 체류조차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좌절했습니다. 처음 민혁이를 어떻게 도울까 막막하기만 하던 상황이 다시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는 출입국청의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또다시 모였습니다. 이 기나긴 싸움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옆에서 친구를 지켜주고 위로해주며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까지 함께해줄 것입니다. 기쁜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닐까요? 김지유 고등부

> 인터넷에 <난민 김민혁 / 이란 난민 중학생 / 아주중 난민>등을 검색하시면 민혁이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큐알코드를 찍으시면 배우 정우성이 친구의 난민 인정과정을 도운 아주중학교 학생들을 만났던 동영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숲 특집 | 민혁이와의 인터뷰

이 멤버, 리멤버다!

난민 인정을 받기까지의 과정 중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난민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은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데다가 인정율도 낮은 심사에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저 희망에 기대서 참고 진행했지만 결국 행정재판에 서까지 패소를 하고 희망이 다 질 때 친구들과 선생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후 개종한 것에 후회하지 않나요?

이슬람국가에서의 개종은 사형에 처하는 중죄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의 개종을 말리지 않고 지켜보셨습니다. 종교는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게 종교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종교문제로 큰 문턱에 섰지만 종교의 선택에 대한 후회는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나요?

아버지와 저는 같은 나라, 같은 사유를 가진, 같은 가족입니다. 어째서 저는 인정이고 아버지는 불인정인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이것이 정말 옳은 판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더 박해받을 가능성이 큼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친구들, 바로 너희 덕분이야.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고 앞으로는 내가 너희 모두에게 꼭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할게. 고마워 친구들아. 이 멤버, 리멤버다~♡

청소년숲 특집 | 꼬마 인터뷰

청소년숲 회장단의 속마음

고등부 회장 류은경을 만났습니다

고등부 회장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1학년 때는 그저 교회를 예배시간에 맞춰 들어가고 집에 가는 일상을 반복했다면 2학년이 되어서 회장이 됐을 때는 확실히 교회 사람들과의 대화도 많아지고 많은 관계들이 형성되어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회장 으로서는 분명 남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일을 하나하나 시작하거나 끝낼 때 모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나아가야 했는데 회장이 임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그저 생각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회장으로서가 아닌 저의 모습이 내가 주체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의 기억이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 그때마다 힘이 들었습니다.

회장이면서 동시에 시간이 중요한 고등학생이신데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나요?

사실 시간을 생각하면 못하는 것이 임원 일 같아요. 물론 시간은 엄청 들어요. 하지만 이러한 시간을 그저 뺏긴다, 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니까요.

저희는 항상 임원 일에 매주 토요일 오후 3시간씩은 들어가는데 딱 그 시간대가 다른 아이들이 더욱 열을 내어 공부하는 시간이긴 해요. 그래도 저희 고등부는 임원일을 시험 2주 전부터는 청년 선생님께 도와주셔서 저희는 2주전부터는 열 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오히려 3시간을 남들보다는 공부를 못하게 되니까 더욱 조바심이 나서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도 해요.

고등부 회장이라고 말하면 일반 사람들의 반응은?

제 친구들은 처음에 들었을 때 뭐? 니가? 라는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평소에 친구들과 놀 때는 너무 방방 뛰다니니 그렇게 진지한 자리에 임하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고 친구들이 말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축하해주더라고요(키키).

나는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원래는 체육 쪽 진학을 목표로 두고 있었지만, 어떠한 사건을 시발점으로 저는 아예 반대로 배를 돌려버렸어요. 워낙 남들과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체험해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언어를 바꾸시지 않습니까? 근데 번역해준다면 약간 반항하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하하).

하지만 그래도 저로 하여금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는 순간을 위해서 이렇게 꿈을 꾸어요. 그리고 저는 외교관으로서의 삶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여러나라 말로 전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찬양팀?

정말 좋은 찬양팀들이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저희 주님의 교회 고등부 마중물이 제일 좋습니다.

설연우 중등부 / 인터뷰 및 정리

중등부 회장 설연우를 만났습니다

중등부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회장단과 선생님들, 예배팀 친구들 모두가 열심히 봉사해주고 예배를 잘 섬겨주시는 것과 자유로운 분위기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등부를 이끌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수련회 같은 단체 활동할 때 친구들이 잘 따라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학원 시간이나 친구들과 시간약속을 잡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기간이나 어쩔 수 없이 빠져야 하는 경우는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도와 주시기 때문에 많이 힘든 것은 아니고 조금 불편한 정도입니다.

회장으로 살면서 신앙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많은 죄들의 유혹에 빠집니다. 교회에서는 안 그렇지만 학교만 가더라도 아이들과 어울리기 위해 친구를 차별하거나 비판하고 증오할 때 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회개하고 성경 필사를 하고 또 QT를 하며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저도 평소에 항상 주님이 곁에 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특히 수련회 같은 시간에 많이 느낍니다. 특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 후 그 따듯함을 느낄 때, 설교를 듣다가 나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해주실 때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느낍니다

좋아하는 CCM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마커스의 시편8편이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교회에는 빠짐없이 항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을 위해 간다는 것 보다는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그냥 저의 일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때 많은 방황과 많은 일들을 겪고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3학년이 되어 다시 시작해보자는 결심과 함께 열심히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 때 다시 저를 주님에게 이끌어주고 위로가 되어주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저는 어릴 때 많은 아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 소수자들과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불편한 점을 느끼고 또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 또한 저는 경험했습니다. 전 아직 진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삭개오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적어도 그 사람들을 위해 작은 행동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아직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류은경 고등부 / 인터뷰 및 정리

청소년숲 특집 | 청소년 생활 탐구

중학생의 일상

청소년숲 특집 | 청소년 생활 탐구

고등학생의 일상

매주 주일 아침 7시, 나의 교회 일상이 시작된다. 일어나자마자 어제 하던 기타 연습을 시작한다. 중등부 찬양팀에 속해 부족한 실력이지만 일렉기타로 섬기고 있는 나는 매 주일마다 중등부 예배 때 일렉기타 반주를 한다. 그 때문에 매주 토크방에 올라온 콘텐츠를 들으며 일렉 연습을 하곤 하는데 아직은 부족한 실력이기에 주님께 올릴 찬양을 드리기 위해 열심으로 연습을 한다.

그렇게 연습을 하다 교회에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며 교회 갈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매주 찬양팀 연습 시간에 아주 조금(?) 늦는 편인데 앞으로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할 것 같다.

일렉가방을 들고 정문으로 들어가 지하 1층 중등부 실로 가면 먼저 와 있는 찬양팀원들과 찬양팀을 이끌어주시는 선생님께서 나를 기쁘게 맞아주신다. 가끔 지각에 대해 진담이 섞인 농담도 하긴 하지만 일주일 동안 한 번 만나는 인연이라 그런지 다들 즐겁고 반가운 마음으로 찬양준비를 한다.

모두의 힘을 합쳐 찬양 준비를 마치고 찬양 연습까지 마쳤다면 이제 남은 건 주님께 찬양 드리는 일뿐이다. 크고 작은 실수가 있기도 하고 때론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다는 그 행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왕목사님 혹은 양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난 후 순식탁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교회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오전 11시경 집에 돌아오면 나의 교회 일상은 끝이 나게 된다.

어릴 때 교회에 그저 부모님을 따라 어쩔 수 없이 갔던 것은 부끄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팀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정말 온전히 나의 의지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고되고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매주마다 찬양 연습을 해야하고 토요일 날엔 일찍 자고 일요일 날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10대 청소년들(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한다 ㅎㅎ)에게는 가혹하고 힘든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힘들기보단 더욱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고 기쁜 마음으로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그런 나의 삶의 변화를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 친구들 또한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탁경훈 중등부

우주야 일어나야지~ 외출 준비를 마친 아빠가 나를 깨우는 소리이다. 기지개를 크게 하고 비몽사몽 일어나 세수를 한다. 옷에 관심이 많은 나는 어제 신중히 골라둔 옷을 입고 아빠와 함께 집을 나선다.

차 안에서 아빠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교회에 도착해 있다. 예배 준비하러 교역자실에 가 보면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밝게 반겨주신다. 토요일에 뽑아둔 주보를 챙겨 들고 다목적관으로 넘어가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모임 중인 찬양팀이다. 인사를 간단히 하고 반 푼말을 놓고 있으면 우리 임원 친구들이 하나 둘 도착하기 시작한다.

토요일도 일하고 일요일 아침에도 일찍 나오려면 힘들 법도한데 투정하나 없이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 이런 기특한 친구들과 예배 준비를 무사히 마치면 모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훌쩍 흘러 어느새 예배 시작 5분 전이 된다. 그럼 나는 반으로 이동하여 앉아 예배드리기 전 기도를 간단히 한다.

찬양팀이 예배의 시작을 알리고 나는 완전히 찬양에 빠져들게 된다.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눈꺼풀이 무거워지지만 다시 정신을 붙잡고 다시 집중한다.

예배가 끝나고 광고시간에서 소식들을 접한 후 반 모임으로 이어진다. 그날 예배의 생각을 각각 나누고 담임 선생님의 깔끔한 정리로 요약해주시면 예배는 2번 들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내가 좋아도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반 모임이 끝나면 난 다시 예배실로 올라가 의자 정리를 돕는다. 물론 의자 정리는 힘들지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다 보면 어느새 노동이 놀이로 바뀌는 신기함을 느낀다. 의자로 꽂 찼던 예배실이 비워지고 이 잠깐의 만남만으로 부족한 우리들은 같이 밥을 먹으러 간다.

이우주 고등부



청소년숲 특집 | 청소년 생활 탐구

청소년이 바라보는 어른, “라떼는 말이야”

* 어른들의 좋은 모습 *

• 솔직한 어른의 모습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의 어른이 좋아요!

예 : 자신을 부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 주는 모습! 또한 해야 하는 말이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싶을 때 그것을 감추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또한 잘못을 했을 때 숨기려 하지 않고 뉘우치는 어른이 되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_역대상 29:17

• 예의를 지켜주는 어른의 모습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직원들에게나 봉사하는 분들에게나! 변함없이 예의를 지켜주고 상냥히 대해주는 어른이 좋아요!

예 : 카페 직원을 홀대하지 않고 존대해주는 어른이 되어주세요! 또한 편의점 직원처럼 서비스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했다는 인사 한 마디, 콜센터 직원들에게 상냥히 대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누구나 감동받겠죠? 또한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그날 하루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_고린도전서 13:4~5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니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_잠언 21:24

• 강요하지 않고 권유하는 어른의 모습

강요가 아닌 권유를, 명령이 아닌 조언을 주는 어른이 좋아요!

예 : 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고, ‘권유’에 관한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었으면 좋겠어요. 학업에 관한 내용이라도 자녀와 충분히 상의를 해보고 결정하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준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생각해주는 어른이 좋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_사도행전 14:22

• 꾸준한 믿음을 지키는 어른의 모습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는 멋진 어른이 좋아요!

예 : 자신이 힘들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멋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힘들 때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믿는 어른의 모습이 멋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_로마서 5:3~4

* 어른들의 안 좋은 모습 *

• 차별하는 어른의 모습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어른은 안 좋아요!

예 : 장애 여부와 성별, 학점과 학력 등으로 다른 사람을 구분 짓고 차별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성별에 따라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 짓고, 그 잣대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모습의 어른들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_갈라디아서 3:26~28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_신명기 10:17

이시은 고등부



청소년숲 특집 | 청소년 생활 탐구

나의 사춘기 심리 테스트

당신의 사춘기, 아주 쉽게 알아보세요! 단순히 17개의 질문만 OX로!

1. 부모님과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 (O, X)
2. 엄마 잔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난다. (O, X)
3. 거짓말을 한 적이 많다. (O, X)
4. 눈물이 자주 난다. (O, X)
5. 거울을 자주 본다. (O, X)
6. 옷 차림에 신경이 쓰인다. (O, X)
7. 연예인, 탤런트 팬클럽 (카페)에 많이 가입을 했다. (O, X)
8. 친구들과 전화를 자주 한다. (O, X)
9. 일을 결정할 때 친구의 말을 잘 따른다. (O, X)
10. 부모님보다 친구들과 있는 것이 좋다. (O, X)
11. 친구 사귀기 힘들어진다. (O, X)
12. 쉽게 화가 난다. (O, X)
13. 동생과 자주 싸운다. (O, X)
14. 이성에게 관심이 간다. O(O, X)
15. 내 몸에 관해 점점 알고 싶어진다. (O, X)
16. 우울해진다. (O, X)
17. 감수성이 예민해졌다. (O, X)

당신의 사춘기 진단 결과예요!
0의 개수가 몇 개인지 살펴보세요!

0~5개 : 사춘기는 멀었습니다.
6~9개 : 얼마 있으면 사춘기이네요.
10~13개 : 사춘기가 시작되네요.
14~17개 : 사춘기 진행 중 & 조심하세요



문수인 중등부

청소년숲 특집 | 청소년 생활 탐구

패션왕

패션이란 무엇일까?

사전에 찾아보면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복식이나 두발의 일정한 형식’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옷 스타일이다. 특히 우리 10대들에게 패션은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제 우리들의

한마디로 요즘 유행하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



위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요즘 우리 세대(청소년)에게 인기 많은 브랜드들이다. 그렇다면 브랜드의 성격도 비슷할까? 아니다.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목적과 용도, 옷 속에 담겨있는 스토리가 다양하다. 우리 청소년들은 왜 이런 브랜드를 즐겨 입을까?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

첫 번째, 개성.

각 브랜드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듯, 우리는 각자 추구하는 스타일과 개성이 다르다. 일상에 교복을 벗을 일이 없는 우리에게 각 브랜드의 옷은 남들과는 다른 각자만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두 번째, 합리적인 가격.

브랜드마다 가격대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어떤 옷들은 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표를 달고 있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주로 옷을 구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편집샵(다양한 브랜드를 한데 모아두고 파는 매장)은 여러 가지 할인과 이벤트를 통해 가격대를 확 낮춰 판매한다. 물론 신상들은 할인도 하기 전에 품절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재입고를 기다리며 용돈을 모으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세 번째, 가격에 합당한 퀄리티.

시장이나 길거리에 보이는 보세 의류들(흔히 노브랜드라 부르는 상품들)은 값은 저렴하지만 활동량이 많은 학생들이 입기에 쉽게 헐어서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위 브랜드들의 경우, 디자이너가 창업자인 업체가 많기에 디자이너가 쏟은 열정만큼 내구성과 퀄리티가 좋아서 오래 입기에도 좋고, 유행과 상관없이 즐겨 입을 수 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브랜드는 유행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는 내용 또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패션이란 어쩌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창구일지도 모른다.

학생들이 패션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모습이 어른들의 눈에는 단순한 시간 낭비, 돈 낭비로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낭비를 통해 성장하지 않았는가? 무조건적인 질책과 비난보다 따뜻한 조언과 충고가 우리들 훨씬 더 멋진 어른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컴퓨터로 예전부터 점찍어놓은 단화를 하나 샀다. 3일후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정말 흥분한 표정으로 상자를 까기 시작했고 실물을 보고 만족해하고 있을 때 아빠가 옆에서 말씀하셨다. “야~ 그런 신발 아빠 학생시절에 많았다~”라고. 난 의아했지만 진실이라는 이야기에 깜짝 놀람과 동시에 유행은 돌고 도나보다 이 생각이 번뜩 떠올랐다.

탁경훈 중등부, 이우주, 양준하 고등부



청소년숲 특집 | 쉬어가는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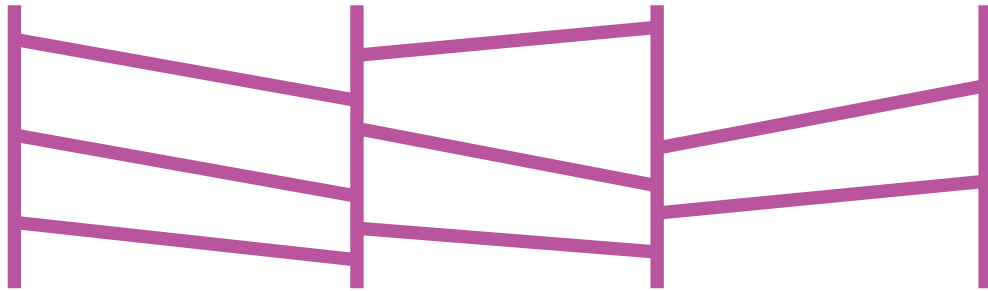
좋은 글귀 사다리 타기

익숙함에 속아

마음껏 자신감을 가져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에게는 아직



그래도 될 만큼
너는 가치 있다

①

꿈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어

②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③

소중함을 잊지 말자

④

직접 써보세요!!

① :

② :

③ :

④ :

청소년숲 특집 | 요즘 사전

세종대왕님도 무릎 딱 친, 요즘 줄임말

자만추 :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갑분싸 :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솔까말 :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인만추 : 인위적인 만남 추구

아 아 : 아이스 아메리카노

금사빠 : 금방 사랑에 빠지다

버카충 : 버스 카드 충전

뜨 아 : 뜨거운 아메리카노

세젤예 :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꾸안꾸 : 꾸민듯안꾸민듯

자날괴 :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답정너 :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반모, 존모 : 반말모드, 존댓말모드

청소년숲 특집 | 년센스 퀴즈

어른들은 모르는 퀴즈

①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SNS는?

② 해와 달중 해만 취재하는 기자는?

③ 날마다 이상한 것을 보는 사람은?

④ 3월에 대학생이 강한 이유는?

정답

① 페이스북 ② 해리포터 ③ 치과 의사 ④ 개강해서

청소년숲 특집 | 사진 잘 찍는 법

특징 없는 어른들의 프로필을 바꿔드립니다!

배경을 잘 이용해라

① 나무나 기둥같이 튀어나온 물체가 있다면 머리위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각도를 조정해라!

② 인물의 시선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데 오른쪽을 막아버리면 답답한 느낌을 준다! 인물의 시선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으면 오른쪽에 여백을, 왼쪽을 향하고 있으면 왼쪽에 여백을 주면 훨씬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다!

수평을 유지하자

사진의 기본은 수평이다! 인물이 기울어져 있으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한 사진이 된다. 사진을 찍을 때, 특히 인물 사진을 찍을 때에는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자!

각도의 중요성을 알자

인물 전신을 촬영할 때에는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살짝 기울이면 똑같은 포즈의 인물을 촬영하더라도 훨씬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 셀카를 촬영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게 찍으면 얼굴이 좀 더 가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사진이 흔들리거나 각도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균형 잡힌 사진을 찍기 위해선 스마트폰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라야 추후에 보정을 하거나 사진을 확대할 때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김찬영, 백서진 중등부

사진 각도의 중요성



안 좋은 예시 1



안 좋은 예시 2



좋은 예시 1



좋은 예시 2

청소년숲 특집 | 학생들의 작품

손끝에서 펜끝으로

1. 김시은 <Peridot(스티븐 유니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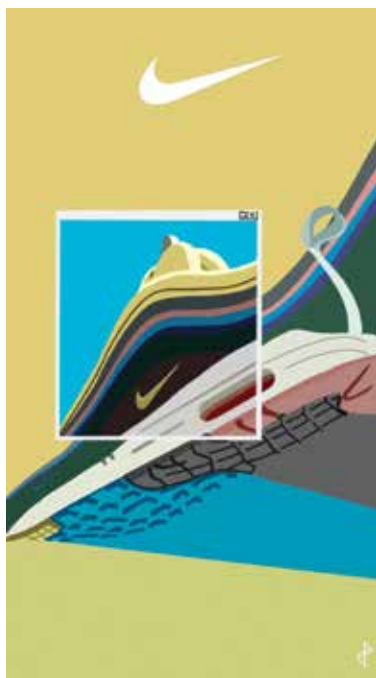
2. 김시은 <Marceline the Vampire Queen(어드벤처 타임)>



3. 양준하 <상상 신발 디자인1>



4. 양준하 <상상 신발 디자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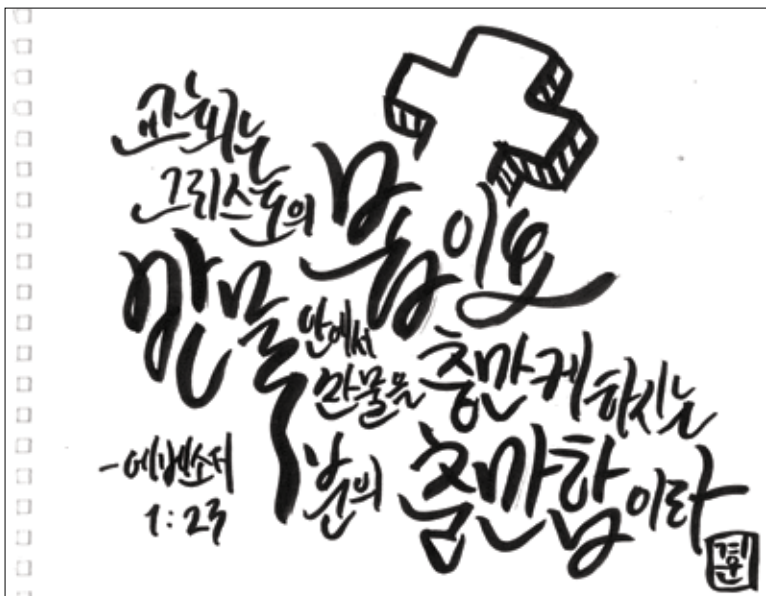
5. 양준하 <상상 신발 디자인3>



6. 양준하 <상상 신발 디자인4>



7. 탁경훈 <말씀 캘리그래피>



청소년숲 특집 | 청소년이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들어가는 말

얼마 전 수련회에서 나눔을 하던 도중,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17년간 다녔지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짧게나마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지금 나눠보고자 한다.

인터뷰

고등부 이우주 학생은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교회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너무 진지한 신앙심을 요구하지 않고, 10대들은 10대답게 아이들은 아이답게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중고등부가 '쇼미 더 암송', '오디너리 피플' 등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높은 만족을 보였다.

고등부 우지민 학생은 힘들 때나 고민이 있을 때나 화날 때나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교회의 장점으로선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학생들과 소통하고 잘 챙겨주시는 것을 뽑았다. 교회에서도 학교처럼 친구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좋다고 한다.

고등부 정민서 학생은 '내면의 고민들을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편안한 교회'를 바라는 교회의 모습으로 뽑았다. 또한 현재 주님의교회 고등부가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 청년 교사분들이 형성하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만족한다고 한다. 그리고 고등부 예배에서 신하림 선생님과 최원석 선생님을 비롯한 마중물의 찬양이 특히 좋다고 한다. 다만 이미 친한 사람들끼리 너무 친해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중등부 김찬영 학생은 다 함께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교회를 바라는 교회의 모습으로 꼽았다. 김찬영 학생은 현재 중등부가 청년 선생님과의 교류가 활발한 점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예배팀을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함께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뿌듯하게 느껴져서 기쁘다고 말했다.

중등부 장윤태 학생은 목사님, 목회자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교회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면에서 현재 교회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청소년부의 선생님들과 목사님께서 청소년과 소통하시는 것이 좋다고 한다.

우리의 생각 정리

@공간 @교사 교역자 @공동체 @선두

이런 인터뷰들에 따르면 여러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제공되는 공간의 확장, 생각을 이해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교사와 교역자들,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 시대의 변화를 좇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했을 때 과연 어떤 대안들을 내세워 추구하는 점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더 넓은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에게선 현재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모일 수 있는 공간, 찬양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등이 필요하다. 교회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에 너무 작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점이다.

다음으로 다룰 이야기는 공감에 강점을 가진 교사와 교역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일요일에 교회에서 교사와 교역자들과 일상을 나누고 편하게 고민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 평일에는 학교에 치이고 학원에 치이고 일에 치이면서 살다가 교회에서만은 공동체 안에서 편안하게 고민을 공유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 같은 교사와 교역자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필자의 경우에도 종종 고민이 있을 때마다 교역자실에 들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가끔은 눈물로 호소하기도 한다. 그렇게 묵혀두었던 감정을 하나씩 풀어 열어보면 부정적인 것들에만 고정되던 시선이 새롭고 긍정적인 것들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조용히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조용히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교사와 교역자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나아갈 사회에 비해서는 비록 소규모지만 그래도 어떻게 설명하자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라는 사회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청소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을 겪었기에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교사와 교역자들이 존재한다면 한 길을 걷고 있는 동등한 입장에서 동일한 일을 겪고 있을 수 있는 친구라는 공동체도 문제에 또 다른 접근과 공감의 방식으로 서로를 위하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고민과 문제점만 부각시키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기보다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격려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우리가 되자는 의견이 있었다. (시대의 변화란 무엇일까) 사람들 사이 선호의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고 변화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선두에 선다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얼마 전에 고등부에서 진행한 '쇼미더암송'이라는 프로그램처럼 각 연령층 혹은 공동체가 소비하고 선호하는 티비 프로그램 등을 교회 활동과 접목시키면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쫓지만은 않아도 어느 정도 그 흐름을 타며 우리만의 특별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시현, 김시은, 정민서 고등부

청소년숲 만화



김경서 고등부

청소년숲 특집 | 청소년부 활동 영상 모음

청소년부의 활동, 영상으로 보다!

스마트폰의 인터넷을 실행하고, 큐알(QR) 코드 검색기를 켜 후 스캔하면 해당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2019 중등부 여름수련회



전국교회 수련회 홍보 및 엔딩



2018 겨울수련회



트로피카나 패러디 메이킹 필름



2019 중등부 겨울수련회



2019-1 트렉 어와나 실내게임



2018 중고등부 연합 여름수련회



전도사의 핸드폰 게임방송 전도사례



함께 걷기



뉴트로지나 패러디



2019 고등부 겨울수련회 홍보



2019 고등부 소미더암송
벤지노 금도끼 - 머거



2019 고등부
겨울수련회 엔딩



소미더암송
지저스 차일드 - 다윗의 노래



소미더암송
빈티지노 - 여호와

청소년숲 특집 | 편집후기

편집자들의 소감

←

그룹채팅 20

🔍

☰

📢

편집자들, 소감 나누어 보세요~

▼

문수인(14)

신문이란 무엇인가 : 글과 재미로 가득 찬 Article이다

백서진(15)

형 누나들과 친해질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장윤태(15)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

김찬영(16)

신문을 완성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완성해서 뿌듯했다.

탁경훈(16)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양준하(17)

A-men 다들 보시라구 재밌게 빠고

김자유(17)

함글함글 제작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경서(17)

졸라맨 같은 그림을 신문에 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예은(18)

청소년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정민서(17)

늦게 합류했지만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이시현(17)

함글함글 제작에 참여하게 되어서 행복했다.

류은경(18)

렛츠 기릿 함글함글을 예뻐바디 함글함글

김시은(17)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뜻깊었습니다.

이우주(18)

일상이 일상을 만들어가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일상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설연우(16)

우리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었다.

김현서(16)

나의 글을 신문에 실어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는 것이 새로웠고 뿌듯했다.

임목사님(♥)

사랑한다. 응원한다. 너의 고유한 삶의 길을! 모두들 고생 많았어! 일단 밥 먹자 ~^^

조전(30)

청소년은 교회의 희망이다.

양전(30)

청소년은 무조건 사랑스러운 존재다.

백전(27)

다음 세대가 궁금하다면 이번 호수는 정독 필독!!!!!!